

## ‘영광군수 선처 탄원서’ 시비 폭행 경찰, 4명 입건 서명 경위 등 조사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놓고 주민들간 주먹다짐이 있었다.

영광경찰은 6일 주민들끼리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김모(20)씨 등 4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일 새벽 2시에 영광읍 단주리 A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임모(23)씨가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탄원서 서명을 거절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임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 등 3명도 임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4명 모두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 등이 탄원서 서명을 받으려 했던 경위도 조사 중이다.

한편 영광군 일부 이상들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 유사선거사무실 설치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 군수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영광군 관계자는 “강 군수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지역특산물 관촉행사차 미국을 방문 중으로 탄원서 작성에 관여하 바 없다”고 해명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 벤츠·BMW도 가짜 있었다

경찰, 325만점 압수·6,447명 입건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가짜 명품’에 대한 단속을 시작, 6천447명을 입건하고 10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압수된 위조 상품 325만 점의 시가는 1조1천700억원에 달했다.

경찰의 수사는 존재하지 않는 ‘빈센트 앤 코’라는 해외 명품 브랜드를 연예인에게 증정하는 등 호화 마케팅을 벌인 황당한 사기극이 지난 7월 말 적발된 것이 계기가 돼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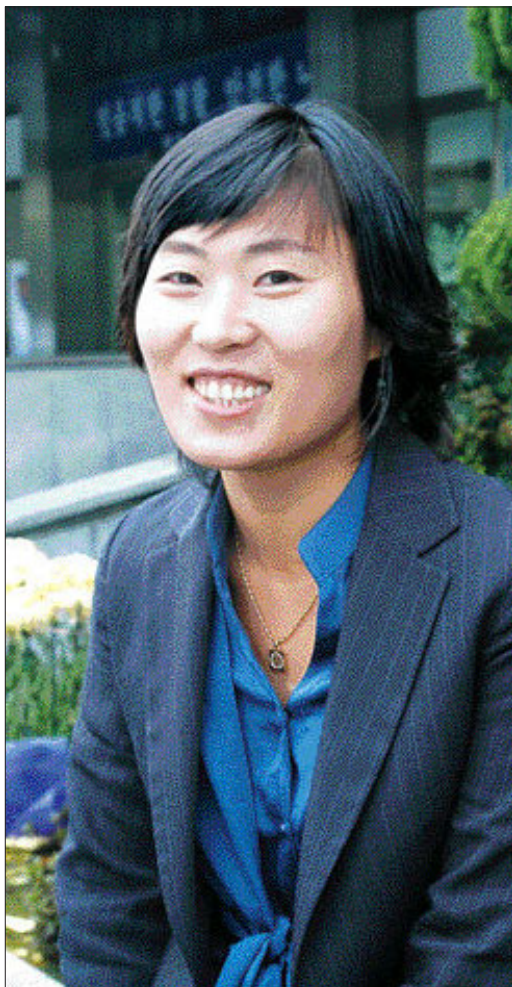
이후 전면적인 단속에 착수, 모 수입업체 대표 등이 수입해 ‘180년 전통의 명품 시계’라고 광고해온 ‘지오 모나코’가 실제로는 수년 전 시계 생산을 시작한 유럽 업체의 중저가 손목시계를 밝혀냈다.

외제차 선호 풍조에 편승, 폐기처분된 일본산 모터사이클이나 상태가 좋지 않은 벤츠·아우디·BMW 등 유명 승용차를 싸게 들여와 수리한 뒤 팔아 온 경우도 있었다. 한 수입업자는 2만~3만원짜리 중국산 저가 짐질기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고가의 국산 의료기기로 둔갑시킨 뒤 10배 가까이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다가 걸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짜퐁” 제조와 유통 수법이 예전엔 가방·시계·의류·구두 등 소비재 위주였으나, 최근 자동차·오토바이·가구·의료기기 등 고가 내구재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전남 첫 강력계 女형사 한달만에 흥기 강도 잡았다



### 북부경찰서 신경미 경장 전남경찰청장 표창 받아 아버지는 경사,父女경찰

이미 경찰 내에서 3D(Difficult·Dirty·Dangerous/어렵고·더럽고·위험한 일) 보직이 돼버린 ‘형사계 강력팀’.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을 다루는 곳이라 남성 경찰들도 기피하는 곳이지만, 20대 여성의 몸으로 처음 강력팀에 배치된 여경(女警)이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듯 강도를 잡았다.

신 형사는 6일 새벽 2시24분께 파트너 박진석(37·경장) 형사와 함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PC방으로 들어갔다. 지난 1일 새벽께 중흥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흥기로 주인을 위협해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절도 2범의 용의자 송모(26·주거부정)씨를 검거하기 위해서였다.

PC방 안쪽에 범인과 비슷한 용의자를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미리 작성한 몽타주와 비교했다. 머리 카락은 짧았지만, 몽타주의 용의자 모습과 흡사했다.

그녀는 용의자의 오른쪽 팔을 꼭 잡고 물었다. “××× 맞지?” 고개를 끄덕거리자, 손을 뒤로 꺾어 재빠르게 수갑을 채웠다. 허술한 틈을 보이면 반항하거나 달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PC방 안쪽에 범인과 비슷한 용의자를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미리 작성한 몽타주와 비교했다. 머리 카락은 짧았지만, 몽타주의 용의자 모습과 흡사했다.

그녀는 형사담배 일을 해야죠. 경험을 많이 쌓고 싶어요. 또 아는 만큼 몸으로 될 겁니다.”

/이승배기자 tsb54@kwangju.co.kr

하지만 송씨가 일어나는 순간 그녀는 순간 움찔했다. 앉아 있을 때와는 달리 키가 187cm 정도인데다, 몸무게가 100kg에 달하는 거구였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당황하지는 않았다. 키 162cm의 왜소하고 연약한 여성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합기도 공인 1단의 실력이 있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였다. 송씨는 6일 신 경찰 팀에 붙잡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00년 10월 순경으로 임용된 그녀는 6년 동안 해남경찰서 경계팀과 형사계에서 근무한 뒤 지난 달 13일 광주 북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기면서 광주의 첫 강력계 여형사가 됐다.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이 “위험하지는 않느냐?”라고 묻지만, 신 형사는 “오허려 동료가 다칠까봐 걱정”이라며 너스레를 떠내고 한다.

여성이라고 걱정이 앞서는 동료도 많지만, 여성 강력계 형사여서 유리한 점도 있다. 용의자를 미행하거나, 잠복할 때 남성 경찰에 비해 의심을 덜 받는다. 해남에서 형사계에 근무할 때도 소매치기를 미행하면서, 남자 직원과 부부처럼 위장해 뒤를 밟기도 했다.

그녀가 경찰이 되기로 결심한 때는 아버지(신완수·56)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는 지난 1980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지금은 영광경찰서 민원실장(경사)을 맡고 있다.

그녀는 이제, 강력계 형사로서 인정받겠다는 꿈을 처음으로 이뤘다. “힘들지는 않느냐” “다친 곳은 없느냐”고 늘상 걱정하며 묻는 어머니에게 당차게 말한다.

“형사는 형사담배 일을 해야죠. 경험을 많이 쌓고 싶어요. 또 아는 만큼 몸으로 될 겁니다.”

/이승배기자 tsb54@kwangju.co.kr

## ‘새벽 발일’ 한 마을 노인들 참변

강진서 영암가다 교통사고...1명 사망·6명 중경상

이른 새벽 발일 나간 할머니들을 태운 승용차가 불법 유턴하던 트레일러에 부딪혀 한 마을 주민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6일 오전 6시30분께 영암군 확산면 목동리 국도 2호선에서 전남 51가 12××호(운전자 이모·여·57) 콩코드 승용차가 유턴하던 전남99가 70××호(운전자 조모·39) 2t 트레일러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최모

(여·65·강진군 성전면 대월리)씨가 숨지고, 같은 마을 이모(여·61)씨 등 60대 할머니 5명과 운전자 이씨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강진의료원 등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7명은 이날 새벽 도시락을 싸들고 강진을 출발, 영암 미암면의 한 인삼밭으로 가던 중이었다. 최씨 등은 최근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고 있는 영암지역 인삼밭에서 하루 일당 5만원씩을 받으며 일을 해왔으며, 이날도

차비를 아끼기 위해 운전자 이씨가 모는 승용차에 7명이 함께 타고 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진에서 영암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삼거리로 20여m 앞두고 불법 유턴하던 트레일러를 미처 피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영암=김현남기자 hnkim@kwangju.co.kr

/강진=이병철기자 mood@kwangju.co.kr

### 마트 전문 절도범 검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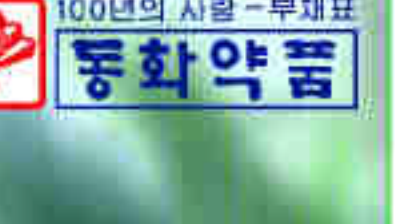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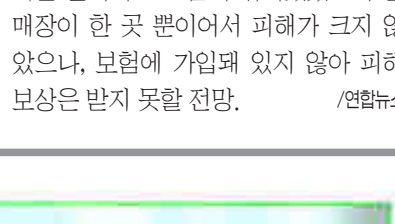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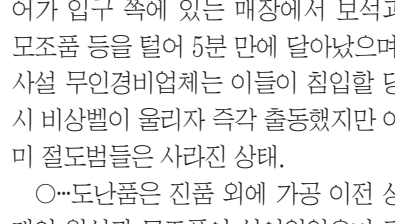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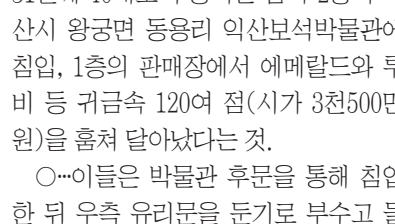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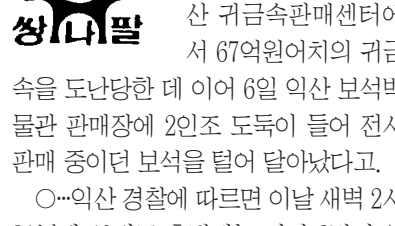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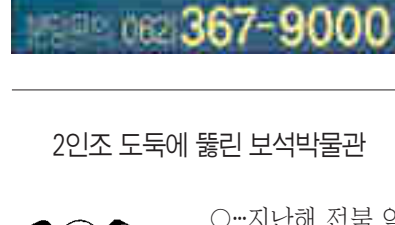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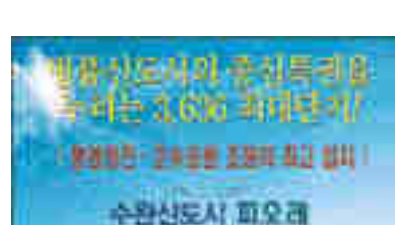
보성경찰은 6일 새벽 시간대를 이용, 대형 마트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여온 박모(40·대구 서구)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정모(45·경남 김해시)씨 등 2명을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7~9일 사이 광양 C마트와 보성 J마트의 방범창과 벽을 절단기로 뚫고 침입한 뒤 철제 금고를 통째로 훔치거나 지렛대 등을 이용, 금고를 파손해 돈만 빼내는 수법으로 현금 1억여원을 훔친 혐의다.

박씨 등은 최근 2년 새 별정 연휴를 틀타 광양·보성·고흥·경남 거창 등지 대형 마트에서 3억~4억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kwangju.co.kr

### 나원침 (6969) 김홍두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최수민 김동원